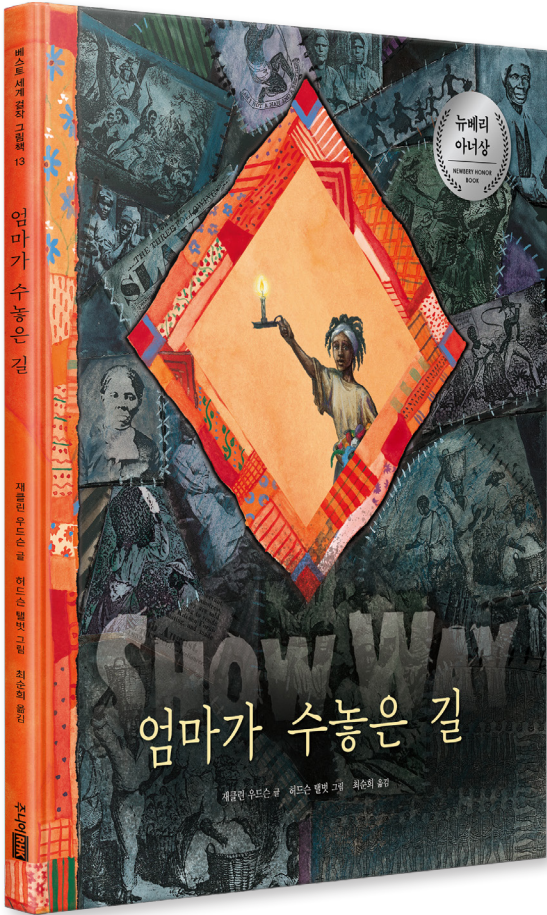


# 주니어RHK 독서 활동지 <엄마가 수놓은 길>

현직 초등 교사 집필 • 교사 및 양육자를 위한 설명서 수록



★★★★★  
2006  
뉴베리 아너상  
수상작  
★★★★★

뉴베리상 4회  
H. C. 안데르센상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  
맥아더 펠로십  
수상 작가

★★★

웅장한 스케일의 역사를 짜임새 있게 압축한 뛰어난 그림책  
\_김지은(아동문학평론가)

★★★

학교에서 '자유와 인권' 주제로 수업을 할 때 꼭 필요한 책  
\_최유라(초등학교 교사)

## 엄마가 수놓은 길

재클린 우드슨 글 | 허드슨 텔벗 그림 | 최순희 옮김 | 48쪽 | 14,000원 | ISBN 978-89-255-7874-3 (77840) | 4세 이상, 초등 전학년, 100세 그림책

**교과 연계** (해당 학년·과목·단원에 해당되지 않아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1학년 2학기 : 7. 무엇이 중요할까요

2학년 1학기 국어 : 8. 마음을 짐작해요

2학년 2학기 국어 : 7. 일이 일어난 차례를 살펴요

2학년 2학기 겨울 : 1. 두근두근 세계 여행 3학년

3학년 1, 2학기 독서단원

4학년 1학기 국어 : 10. 인물의 마음을 알아봐요

4학년 2학기 도덕 : 6. 함께 꿈꾸는 무지개 세상

5학년 2학기 도덕 : 6. 인권을 존중하며 함께 사는 우리

6학년 2학기 도덕 : 6.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

6학년 2학기 사회 : 2.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 평화

6학년 1학기 국어 : 8. 인물의 삶을 찾아서

6학년 2학기 국어 : 8. 작품으로 경험하기

## 현직 초등 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 다시 말해 ‘인권’은 아이들의 삶에서 꼭 필요한 주제이고 꼭 알아야 하기에 아이들에게 제대로,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려 줘야 하지? 라는 물음 앞에서는 교사인 저조차도 멈춥니다. 이유는 이렇 겁니다. 흑인 노예의 역사는 인간의 잔혹사입니다. 흑인 노예는 주로 16~19세기에 유럽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에 의해 아프리카로부터 강제로 끌려와 노예로 부림을 당하던 흑인들을 말합니다. 역사 속에서 백인들은 흑인 노예들을 물건처럼 사고팔았고, 짐승처럼 부렸습니다. 이렇게 아프고 잔인한 과정을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할 때 걱정부터 앞서는 건 당연할 겁니다. 또 이 작품에 등장하는 흑인 노예 제도는 미국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초등학교 5학년에서야 다루는데 다른 나라의 역사를 그것도 기나긴 흑인 노예의 역사를 어떻게 잘 설명해 주어야 할지 난감하지요.

《엄마가 수놓은 길》은 마치 이런 고민을 듣기라도 한 듯, 근사한 그림과 함께 멋지게 해결해 줍니다. 작품은 할머니에게서 엄마로 엄마에게서 딸로 딸에게서 손녀로, 8대에 걸친 한 여성 가족의 이야기를 ‘조각보’에 담아 풀어 줍니다. 아름다운 형묘 조각을 이어 붙여 완성되는 조각보처럼 그들의 이야기도 역사와 함께 이어지고 ‘차별 없는 완전한 세상’을 꿈꾸며 끝을 맺습니다. 흑인 노예였던 1대 수니의 증조할머니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3대 수니가 태어날 때쯤에 이르면 노예 제도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흑인 차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이어지면서 6대 캐럴라인과 앤이 일곱 살이 될 때는 어린 쌍둥이 자매가 흑인과 백인을 따로 살게 만든 법을 바꾸기 위한 시위 행진에 참여합니다. 7대 재클린의 시대에서 흑백 분리 차별법은 사라지고, 좀 더 나아진 세상 속에서 8대 토시 조지아나가 엄마에게 선조

들의 지난 역사를 듣는 장면으로 작품은 끝이 납니다.

《엄마가 수놓은 길》의 큰 장점은 흑인이 학대받고 차별받는 잔혹사를 전면엔 내세우지 않고 아름다운 그림과 세대별 이야기를 통해 따뜻하고, 몽클하게 들려준다는 점입니다. 차별과 억압 속에서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길을 열어 준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도 자연스럽게 알려 줍니다. 인권과 자유는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대에 걸쳐 수놓아 온 길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지요. 세대별로 자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은 다르지만,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 그 마음을 느끼는 것은 같습니다. 그 마음이 이 그림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만하게 느껴지니 참으로 대단한 작품입니다.

아이의 나이나 호기심의 범위, 역사 이해 수준에 따라 더 많은 이야기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것도 이 책의 장점입니다. 어른들은 작품 속 곳곳에 있는 흑인 차별의 역사적 현장을 보고 작품 속의 실제 배경을 아이들에게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또 조각보 속에 담긴 숨은 암호를 찾아보며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아가 지금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도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이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Black Lives Matter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또 흑인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억압과 차별, 자유의 역사는 우리나라, 우리 시대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면 아이들은 인권을 이해하고 자유와 평등을 생각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많아지면 아이들이 어른이 된 세상은 한 뼘 더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일 테고요. 어쩌면 《엄마가 수놓은 길》을 읽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우리 어른들이 아이와 함께 만드는 ‘자유의 길을 수놓는 조각보’가 아닐까요.

### 최유라 (청주 청원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과 책을 만드는 선생님입니다. 아이들과 오랫동안 책으로 수업하고 책을 만든 과정과 결과를 SNS와 강의를 통해 선생님과 양육자에 공유하며 교실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 학교 밖 전문적 학습 공동체 <참쌤스쿨>, 그림책 연구회 <다독다독>
- 충북, 충남교육청 초등1급 정교사 자격 연수 포함 전국 교육청 ‘그림책 활용 교육’ 연수 강사





# 미션 1 : 책 표지를 보고 힌트 찾기



책 표지를 찬찬히 살펴보며 작품 속 이야기를 상상해 보고, 내용의 힌트를 얻어 보세요.

1. 어두운 배경 뒤로 많은 그림과 사진을 볼 수 있어요. 무엇이 그려져 있나요?

2. 표지 가운데 촛불을 든 소녀를 볼 수 있어요. 소녀는 촛불을 들고 무얼 말하고 싶은 걸까요?



3. 표지를 보고, 생각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을 상상하여 써 보세요.

4. 표지 중앙에 마름모꼴 형겅 조각이 보이지요? 형겅 무늬도 자세히 살펴보세요.

5. 《SHOW WAY》 영어 제목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 미션 2 : 이야기 정리하기



작품은 수니의 증조할머니부터 토시 조지아나까지 8대에 걸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세대별 이야기를 정리해 보세요. 가계도를 그려 보며 작품 속 이야기를 정리해 보는 것도 좋아요.  
 \*가계도 : 가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

## 1대 수니의 증조할머니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농장으로 팔려 감.  
 왕 할머니에게 헝겊에 달과 별과 길을  
 수놓는 법을 배움. 앤슬러와 결혼함.

## 2대 매시스 메이

## 3대 수니의 엄마

## 4대 수니

## 5대 조지아나

## 6대 캐럴라인과 앤

## 7대 재클린

## 8대 토시 조지아나

# 미션 3 : 인물이 되어 인터뷰에 답해 보기

여러분이 각각의 작품 속 인물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고, 질문에 답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책을 읽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답해 봅시다.



## 수니의 증조할머니

- 일곱 살 때 농장으로 혼자 노예로 팔려 갔어요. 그때 마음이 어땠나요?
- 엄마가 형뎌 조각과 바늘, 붉은 색실을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농장의 왕 할머니

- 농장으로 혼자 노예로 팔려 온 아이들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 수니의 증조할머니에게 색실로 수놓는 법을 가르쳐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 주인공 '나' 재클린

- 할머니들이 살아 온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 딸 토시에게 가장 해 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 책을 읽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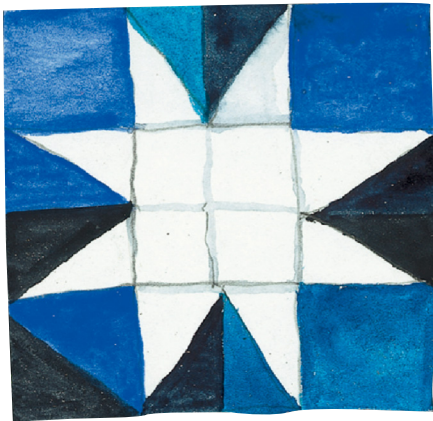
-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 작품 속에는 8명의 여인들이 나와요. 그중 만약 한 명이 될 수 있다면 누가 되고 싶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미션 4 : 작품 속 조각보 이야기



수니의 증조할머니부터 재클린까지, 여성들은 수를 놓은 조각보를 만듭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조각보를 살펴보고 조각보 문양에 숨은 의미를 알아봅시다.

조각보의 문양과 그 속에 숨은 의미를 알아보며 따라 그려 볼까요.



북극성

- 매시스 메이가 만든 조각보는 어디에 쓰였나요?
- 흑인 노예들은 조각보를 보고 무엇을 했나요?
- 흑인 노예들처럼 더 이상 ‘자유로 가는 길’을 수놓지 않아도 되는 ‘나’에게 조각보는 어떤 의미일까요?
- ‘엄마가 수놓은 길’이라는 제목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 미션 5 : 나만의 비밀 암호 만들기



비밀 암호를 만들어 '나만의 조각보'를 만들어 봅시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조각보 암호와 똑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 미션 6 : 흑인들의 삶 알아보기



작품 속에 등장하는 그림과 신문에는 역사적인 사실이 숨어 있어요. 그림을 다시 한 번 살펴 보며 답해 봅시다. 혹시 좀 더 알아보고 싶다면 주변의 어른에게 물어보아도 좋아요. 인터넷 검색이나 관련 책들을 찾아봐도 좋습니다.

‘검둥이’를 ‘판다’는 광고를 볼 수 있어요.



- 검둥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 사람을 어떻게 사고팔고, 빌렸을까요?
-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흑인이 갈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어요.



- 흑인이 갈 수 있는 곳과 갈 수 없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 흑인 입학, 흑인 출입을 왜 반대할까요?
- 이 신문의 제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위의 두 그림을 비교해 보고 답해 봅시다.

- 2대 매시스 메이와 6대 캐럴라인과 앤의 시대를 비교해 보세요. 두 시대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 미션 7 : 어른과 함께 읽어요. 작품 속 배경 알기 ①



《엄마가 수놓은 길》은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가 있던 시절부터 오늘날 자유를 얻기까지 미국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실제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보고, 다시 한 번 책을 읽어 보세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거예요.

##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



작품의 첫 장면을 보면 수니의 증조할머니가 일곱 살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와 떨어져 미국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노예로 팔려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노예들은 농업이 발달한 남부 지역으로 팔려 가 열악한 현장에서 공짜로 농장 일을 했습니다. 흑인 노예들은 1863년 노예 해방 전까지 끔찍한 고통과 억압 속에서 참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트기 전부터 밤늦게까지 고된 일을 했고, 조금이라도 피곤한 기색을 보일 수도 없었습니다. 백인들은 흑인들에게 채찍과 사슬을 휘두르며 비인격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

니다. 《엄마가 수놓은 길》의 작품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노동자들을 짐승처럼 부리는 사람들과 고된 노동으로 힘들어하는 흑인 노예들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 미국의 남북 전쟁 (1861년 ~ 186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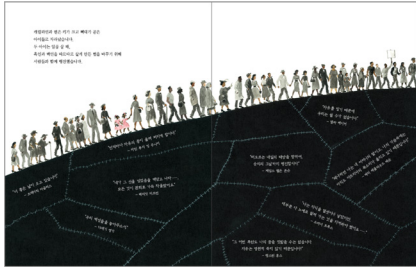


매시스 메이의 남편은 ‘남북 전쟁’ 때 북쪽으로 달아나다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북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나뉘어 전쟁했듯, 미국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 전쟁을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그 전쟁의 중심에는 ‘흑인 노예 해방’이 있었습니다. 미국 북부에서는 산업화에 따른 기계의 발달로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했습니다. 반면 남부에서는 대규모 목화 농장이나 담배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 흑인들의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가혹하고 처참한 억압과 차별 속에서 남부의 흑인들은 노예 제도가 없는 북부로 탈

출을 감행하곤 했고, 남부에서는 도망가는 노예들을 잡으려는 노예 사냥꾼까지 등장했습니다. 노예 제도를 유지하려는 남부와 폐지를 주장하는 북부 사이의 첨예한 갈등은 전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남북 전쟁은 1861년부터 1865년까지 4년 동안 벌어졌고, 1861년 3월, 노예 제도에 반대하는 에이브러햄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북부의 주장에 좀 더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링컨은 1863년 1월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1865년 결국 남부의 항복으로 남북 전쟁이 끝나면서 노예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 미션 8 : 어른과 함께 읽어요. 작품 속 배경 알기 ②

## 흑인 차별에 맞선 위대한 걸음 \_ 로자 파크스의 '버스 안 타기 운동'과 마틴 루서 킹의 '워싱턴 대행진'



미국 남북 전쟁의 종식과 함께 노예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흑인의 평등권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동등하게 대우하지만 분리한다'는 모순된 정책(짐 크로 법)으로 흑인들을 차별했습니다. 식당과 버스에 백인 전용 공간이 별도로 존재했습니다. 캐털라인과 앤이 일곱 살 때 흑인과 백인을 따로 살게 만든 법을 바꾸기 위해 사람들과 함께 행진하는 장면을 보았지요?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는 법에 맞서 시위하는 행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의 버스 안 타기 운동이 떠오릅니다.

1955년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서 로자 파크스가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내주는 것을 거부하여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버스에 흑인과 백인의 자리가 따로 구분되어 있었고, 로자 파크스는 부당함에 맞서 싸웠고, 흑인들도 함께하여 '버스 안 타기 운동'이 벌어집니다. 로자 파크스와 같은 시대를 산 흑인 민권 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는 '버스 안 타기 운동'은 물론 인종 차별 철폐, 흑인 평등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워싱턴 D.C에서 비폭력 행진을 추진했습니다. 흑인들만 참여했을까요? 아니에요. 흑인도 백인처럼 평등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많은 백인도 참여합니다. 100년 전 흑인 노예 해방을 선언한 '링컨' 대통령 동상 아래에 모이는 행진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그 유명한 '마틴 루서 킹'의 연설이 이루어집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이지요. 꼭 한 번 찾아보고 읽어 보세요.



### 흑인 인권 운동가, 해리엇 터브먼

캐털라인과 앤이 행진하는 장면 아래에는 실제 역사 속 인물들의 명언들이 새겨진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흑인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그중 '해리엇 터브먼'이라는 이름이 보이나요? 해리엇은 태어나자마자 농장의 노예가 되었어요. 흑인 노예 탈출을 돕는 조직인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지하철로)'의 도움을 받고 북쪽으로 자유를 찾아 무사히 탈출한 해리엇은 다른 흑인 노예들을 북부로 탈출시키려고 힘썼지요. 당시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를 인도하는 사람을 '차장'이라고 불렀는데, 해리엇은 바로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의 차장이었고, 무려 300명이 넘는 흑인을 탈출시키면서 한 명의 낙오자나 부상자를 만들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대단하죠? 해리엇 터브먼 외에도 프레더릭 더글러스, 소저너 트루스 등 인권 운동가들의 이름이 보여요. 명언과 함께 인물들의 정보를 찾아보세요.

### #Black Lives Matter :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워싱턴 대행진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흑인들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을까요? 2012년 미국에서 흑인 소년을 죽인 백인 경찰이 무죄로 풀려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13년 소셜미디어에 '#Black Lives Matter(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해시태그가 널리 퍼지면서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백인 경찰관의 흑인 무차별 총격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점점 그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2020년 애틀랜타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도 떠오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모든 사람은 평등한데 세상은 인종 차별, 혐오 범죄가 여전히 끊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무얼 할 수 있을까요? 또 무얼 해야 할까요?



# 이 책도 함께 읽어 보세요

## 편견에 맞선 용기와 지혜를 보여 주는 이야기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싶고  
스스로 용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모치모치 나무》

사이토 류스케 글 | 다카다이라 지로 그림 | 김영애 옮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단단한 껍질한 '내'가 되고 싶다면?



《커지고 커지고 커지고》

클라우디오 고펜티 글 | 미켈레 리차르디 그림 | 이현경 옮김

세상의 편견 속에서 씩씩하게  
'나다운 나'로 살아가고 싶다면?



《거인 부벨라와 지렁이 친구》

조 프리드먼 글 | 샘 차일즈 그림 | 지혜연 옮김

## 뉴욕 현대 미술관(MoMA)이 선보이는 여성 예술가 이야기

세계 현대 미술의 거장이 된  
아시아 여성이 궁금하다면?



《쿠사마야요이 : 점, 무한의 세계》

스즈키 사라 글 | 엘렌 와인스타인 그림 | 최순희 옮김

생존하는 여성 최초로 루브르 박물관에서  
전시를 연 여성 화가가 궁금하다면?



《소니아 들로네 : 색이 들려주는 이야기》

카라 메인즈 글 | 파티냐 라모스 그림 | 문주선 옮김

색에 대한 편견을 깨뜨린,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예술을 보고 싶다면?



《꼬마 영화감독 샬롯》

프랭크 비바 글·그림 | 장미란 옮김